

수리 가형 평균 14.5점 하락

(원점수)

표준점수 최고 인문 580·자연 573점

광주교대 525·전남대 의예과 545점

지난해에 비해 까다롭게 출제된 2009 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의 수리 성적 원점수 평균이 지난해보다 10점 안팎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 사이트 '비상에듀'가 수능 성적 발표에 하루 앞서 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 학년도 수능 수리 가형의 원점수 평균은 49.1점으로 지난해 63.6점에 비해 14.5점이 낮았다.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난이도를 고려한 상대평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130점보다 24점 많은 154점이었으며 분석됐다.

수리 나형의 원점수 평균은 38.2점으로 지난해 47.9점보다 9.7점 낮았으며

표준점수 최고점은 158점으로 지난해 141점에 비해 17점 높아졌다. 지난해 수능 이후 가채점 결과, 높은 난이도의 수리 과목이 변별력 확보 수단으로 점쳐진 것이 현실화된 셈이다.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각각 3.2점, 0.4점 낮아져 원점수 평균이 64.2점, 60.7점이었지만, 수리 영역으로 인해 전체 표준점수 최고점도 함께 올라갔다.

수능 4개 영역을 기준으로 한 인문계 표준점수 최고점은 580점으로 지난해 563점보다 17점 높아졌고, 자연계는 573점으로 지난해 550점에 비해 23점 상승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한국지리, 국사가 지난해보다 다소 쉬워 원점수 평균이 높아졌으며, 나머지는 다소 낮아졌다. 특히 경제와 세계지리는 평균점수가 각각 7점, 5.5점 하락했다. 과학탐구 영역은 화학 II와 지구과학 II가 지난해 대비 4.8점, 2.6점 낮은 원점수 평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과목은 비슷했다.

서울대 경영대와 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계열 등은 표준점수(580점 만점) 565점이 지원 가능 점수로 점쳐졌다. 서울대 인문계열 I 과 국어교육, 고려대 국제학부, 연세대 상경계열 등은 555점, 서울대 인류지리학과, 서강대 경영학부, 성균관대 글로벌경영 등은 547점이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문계열 중 광주·전남에서는 광주교대가 525점으로 가장 높은 지원가능 점수를 형성했

고, 전남대 역사교육, 지리교육, 경영학부 등이 51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의예과가 표준점수(573점 만점) 561점이면 지원 가능한 점수로 예상됐다. 고려대, 울산대 의예과가 557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남대 의예과와 동산대 한의예과는 545점이 지원 가능 점수로 나타났다. 서울대 전기공학부와 생명과학부 등은 538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됐다.

한편, 비상에듀가 수능 성적 발표일에 앞서 배포한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발표 전에 수능시험 성적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 사전 유출 논란을 빚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능 성적 분석·배치표 ▶ 15면

미 전투기 샌디에이고 주택가 추락 ... 한인 일가족 참변



미군의 전투공격기인 F/A-18 호넷이 8일 낮(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외곽 주택가에 추락,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기 추락으로 주택 2채가 전소됐고 화재와 함께 발생한 유독성 가스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투자 활약 기업들 수도권 규제완화 후 속속 철회

지난 10월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지식경제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기업 이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으로 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 3개사가 이전을 포기 및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전남도와 MOU를 체결한 4개 업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가시화 시점인 지난 9~10월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했다.

경기도 소재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생산업체인 K사는 지난해 광주시와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북구 첨단산단에 생산공장(1만1천48㎡)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지난 8월 투자 포기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수도권에 비해 연관기업이 적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이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업체인 S사는 첨단산단 내 LED집적화단지(1만6천500㎡)에 420억원을 투자해 본사와 공장 등 회사 전체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태양전자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인버터 생산 공장, 연구소 등을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공장만 이전하겠다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전남도와 MOU를 맺고 장성지역에 투자하려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사는 최근 이전 계획을 철회했으며, 수도권 D기업도 MOU 체결 직전에 협의를 보류했다.

무안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했던 A사는 투자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고 지난해 10월 장성으로 이전했던 물류기업 B사는 투자 규모를 당초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였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물류비 부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연관 산업과 판매 시장의 부재 등 지역의 기업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희종·윤영기기자 chae@

“옛 도청 별관 철거 불가피”

문화수도 추진단, 11월 말부터 공사 사실상 중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공사가 옛 도청 별관의 철거 논란과 관련해 잠정 중단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 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지난 11월 말부터 사실상 잠정 중단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 여러분의 대승적 판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별관 보존을 촉구하고 있는 ‘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제안한 시민 여론조사와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공사 중단 선언이 아니라 공사 추진 의지를 밝히고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별관 보존을 전제로 한 문화전당 설계 변경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음주에 추진단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社告

2009 대학입시 설명회

14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KT 빌딩 대강당

2009 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의 비중이 커지고, 각 대학의 전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최적의 입시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를 토대로 수험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입시 전략을 소개할 이번 설명회에 학부모와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배치 기준표와 자료집을 현장에서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입니다.

- 일 시: 12월 14일(일) 오후 3시
 - 장 소: 광주시 동구 KT 빌딩 3층 대강당(동구청 옆)
 - 강 사: 이영덕 서울 대성학원 평가실장
 - 대 상: 학생 및 학부모, 고 학교 진학실장
 - 문 의: 광주대성학원(www.kjdaesung.com)
- ☎ 062-227-0055~7

光州日報社·광주대성학원·대성학원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호남한샘학원
호남한샘학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키? 아이키?
성정클리닉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0 / 062-222-8111